

KIND, 방글라데시 PPP사업 3건에 대한 배타적 사업우선권 획득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1월 19일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사업청(PPPA, Public-Private-Partnership Authority) 청장 무함마드 알카마 시디퀴)과 제2차 공동협의체(Joint Platform) 회의를 개최하였다.
- 작년 7월 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협의체 회의에서 양국 간 추진키로 약속한 송전선로, 도로사업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 KIND - PPPA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였다. 그 결과, 이번 행사를 통해 각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아국업체를 공식적으로 선정하여 마침내 PPP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타적 사업우선권을 얻는 큰 성과를 이루어내었다. 이와 더불어, 발굴된 프로젝트에 한정하지 않고, 지속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신규 5개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여 방글라데시 PPP사업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결실을 보았다.
- 이번 제2차 공동협의체 회의에서 추진 확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, 향후 우리기업이 방글라데시의 인프라·도시개발 PPP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- 또한, 공동협의체 기간 중 KIND는 전력에너지광물자원부(MPEMR), 도로고속도로부(RHD), 철도청(BR)을 방문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교통, 인프라, 송전선로 및 공공사업 관련 투자개발형 사업에 양국의 공동 이익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.

- 국무총리 직속 산하기관인 PPPA(‘10년 설립)는 방글라데시 인프라 PPP 사업의 개발, 입찰, 시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관이며, 2018년부터 사업의 공동개발 및 우월적 지위에 대한 업무협약(MOU)을 주요 선진국의 PPP 대표기관과 체결하고 있다. 이에 따라, 작년 4월 1일 KIND는 PPPA와 방글라데시 PPP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, 이번 열리는 행사는 동 업무협약에 따라 제1차 공동협의체 회의에 이은 2번째 공식적인 행사이다.

- KIND 관계자는 “본건 공동협의체를 바탕으로, 우리기업과 팀코리아(Team Korea)를 구성하여, 방글라데시의 항만, 도로, 발전 등 분야에서 유망한 PPP사업을 본격적으로 수주 추진하겠다.”는 포부를 밝혔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업총괄실 서영민(☎ 02-6746-7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